

군산시, 어려운 이웃 발굴 '앞장'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운영...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위해 최선

9일 군산시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성 실업 증가 및 한파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기·가스·수도 체납 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침이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2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 분과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주변 이웃의 복지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긴급

복지 지원 선정기준에 따른 공적지원 대상으로 연계된다.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 관리 및 민간기관 후원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 익산농수산물 도매법인인 익산원협공판장이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국적 '인정'

농식품부·aT 주관, 운영실적 평가서 '우수' 선정 작년 농산물 거래량 3만 여톤·거래실적 약 861억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실적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 익산농수산물 도매법인인 익산원협공판장이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며 전국 공영 도매시장 33개소 소속 법인·공판장 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운영실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의 운영 개선과 유통 주체의 경영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리·유통 주체의 개선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

적이다.

익산원협농협공판장은 지난해 농산물 거래량 3만 5,023톤과 861억 7,000만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2018년, 2020년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 '최우수'에 이어 2023년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아 지속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익산원협농협공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와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시장 사용료 인하 등의 포상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출하자와 소비자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국민의 힘 조배숙 의원실 향의 방문

민주당 의장단·원내대표단, 국회의원 책무 저버린 행태 규탄·탄핵안 재추진 시 표결 참여 촉구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김경진·강경숙·조은희·최재현·박철원·양정민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을 향의방문 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배숙 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탄핵안 재추진 시 표결에 참여해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과 익산 시민 앞에 당장 사퇴하고 민의와 역사의 흐름 앞에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박철원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경악스럽다"면서 "독선과 이집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윤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장, "엄중한 시기, 공무원 본연 업무 차질 없어야"

정례회의서, 시민 일상 안정 위한 행정력 집중 당부



군산시가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기에 시민 일상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9일 정례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을 철저히 신경쓰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

민생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 및 청렴 유지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례회의에서는 △당면 사업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 △연말연시 계획된 행사의 차분한 운영 △물가 관리 등 시민 경제 대책 운영 △동절기 재난 대비 철저 등 시민 일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으로도 각 부서는 업무와 연관된 민생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20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9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신 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대비 1,361명 증가한 12,340명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모집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노인역량 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이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역량 활용사업은 △공공단체사업단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활동역량과 경력 등 사업유형별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특히,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중식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경로당 54개소에 노인 일자리(노인역량 활용사업) 참여자를 배치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 노년층의 역량과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군산에 사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얻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군산축협, 나눔공간에 700만원 상당 축산물 기탁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9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축산물 7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후원된 식품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다의로움 나눔공간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심재집 조합장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익산군산축협에 감사하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온정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군산축협은 수해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연탄 전달,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축산물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익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시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이번 대상자 확대 결정으로 소방공무원, 학교 보건교사, 군 의료인력, 교정시설 의료진까지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추가 확대된 대상자는 신분증과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지원과(063-859-748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종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